



인천시회

최호선 회장

## 아시아 허브도시로 발돋움 위해 분주한 인천시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최호선 인천시회 회장으로부터 인천시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시원시원함과 호탕함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는 최호선 회장은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이다. 1883년 개항으로 근대화의 출발이자 6.25 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보루인 인천시가 아시아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호선 회장은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재임되었습니다.

## 재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회장추대 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추대 받아 제9대 회장에 연임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 추대는 끝이 아닌 새로운 3년을 위한 시작임을 회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일깨워 주셨습니다. 옛말에 ‘백리를 가려는 자는 구십리가 반’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은 쉽지만 마무리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늘 초심을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인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 건설경기의 끝없는 침체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해의 경제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침체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지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취소되고 있어서 인천지역 건설경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여파가 인천지역 건설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으며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하고 하고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해도 전체 하도급 물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건설

관련 단체가 똘똘 뭉쳐서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은 과거 서울, 부산, 대구 다음으로 큰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와 인접해 있다 보니 서울, 경기를 비롯한 각 지역 업체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울타리가 없다보니 공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지역 업체는 발도 붙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송도개발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대형 프로젝트로 불릴만큼 큰 프로젝트였지만 2개의 인천지역 업체만 시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공사 역시 인천업체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코오롱을 비롯해 벽산, 한양, 진흥 등 1군 건설사들이 인천에 본사를 두는 등 투자가 활발하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업체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큼 자금력이나 구매력, 기술력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회 조차 얻지 못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은 타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인천시장에게 “인천지역 세수가 부족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지역 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만 세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해 인천시회의 공사실적은 전년 대비 11.2% 증가의 눈부신 성과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회원사의 피나는 노력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 모

두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천시회 수장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첫째, 힘있는 인천시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영향력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등반대회, 워크숍과 같은 회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협회에 대한 소속감 및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취소 및 지연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난제들을 힘있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 신설을 계기로 분리발주 확대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최소한 3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를 필두로 지역 내 각 발주처의 발주계획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분리발주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발주와는 별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역시 전문건설협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노력 및 덤핑수주 지양 홍보 강화**

우리 기계설비공사는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착공에서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저가낙찰제와 무조건적인 덤핑수주는 곧바로 공사의 품질 하락으로 연결되며 우리업계의 신뢰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니다. 더구나 한번 무너져버린 신뢰는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회는 최저가낙찰제도 대안으로 시범 시행 중인 종합심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을 비롯한 발주기관에 지속적인 홍보로 수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덤핑수주 근절을 위한 정화 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천시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의 미래지향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회원사의 해외진출, 신재생에너지, 대형여객선 설비,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건설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통해 업역확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회원사에 당부 말씀**

최근들어 플랜트업계 건설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지만 플랜트업계

는 속수무책이어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플랜트 노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 플랜트공사협의회는 ‘외국인력고용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TF팀의 노력으로 외국인력 고용 허용되어 좀더 나아진 건설환경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업계에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국가 발주기관 및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분리발주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오랜 시간 떨어지는 물방울이 두껍고 단단한 바위도 뚫듯이’ 협회를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난관을 호기로 역

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생각에 적극 호응해 주시리라 믿고 서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단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사의 사업 번창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올미년 새해에도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우리업계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없었듯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회 사무처 직원들(오른쪽부터 최일규 사무처장, 류원식 과장, 백정현 과장, 전승우 대리)

**최호선 회장은**

- 현대중공업(주) 근무
- (주)정호이앤씨 대표이사(現)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가천대학교 CEO아카데미과정 수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청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역임(2008~2011)
- 제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제7대 부회장 역임(2008~2010)
-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제8대 회장
- 가천대학교 CEO과정 총동문회장 역임(2013)
- 인천상공회의소 의원(現)
- 인천경영포럼 부회장(現)
-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現)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現)
- 인천공단소방서 소방발전협의회 위원(現)
- 남인천세무서 세정발전위원회 위원(現)
- 인천광역시시장 표창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 국토해양부장관 표창